

##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강희영<sup>1</sup>, 강희<sup>2</sup>, 김해란<sup>3\*</sup>

<sup>1,3</sup>조선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Hee-Young Kang<sup>1</sup>, Hee Kang<sup>2</sup>, Hae-Ran Kim<sup>3\*</sup>

<sup>1,3</sup>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169명의 간호대학생들이 모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68 \pm 0.46$ 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06 \pm 0.49$ 점이었다.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세계시민 역량의 하위영역인 지구공동체 의식 ( $r=0.48, p<0.01$ ), 다국적 의식( $r=0.42, p<.001$ ), 시민의식( $r=0.27, p<.001$ ), 국가 정체 의식( $r=0.32,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에서 지구공동체의의식, 다국적 의식, 국가정체의의식이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F=17.28, p<.001$ ), 설명력은 총 29%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시민의식의 하부영역인 지구공동체의의식, 국가정체의의식, 다국적 의식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 대학 생들을 위해 문화역량교육프로그램은 문화역량 향상을 위한 이러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y after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competency in 169 nursing students of G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SPSS 24.0 program which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otal mean score of the participants' global citizenship was 3.68 out of 5 points, and cultural competency 3.06 out of 5 point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ommunity concept ( $r=.48, p<.001$ ), multinationalism ( $r=.42, p<.001$ ), general citizenship ( $r=.27, p<.001$ ), national identity ( $r=.32, p<.001$ ) in sub-areas of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competency. Other significant factors were global community concept, multinationalism, and national identity, which explained 29% of cultural competency.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higher global citizenship, the higher the cultural competency. And global community concept, multinationalism, general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in sub-areas of global citizenship affected the cultural competence. Therefore, a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 program designed for nursing students should focus on these factors for enhancing cultural competency.

**Keywords** : Global, Citizenship, Competency, Culture, Nursing Students

\*본 논문은 201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ae-Ran Kim(Chosun Univ.)

email: rahn00@chosun.ac.kr

Received May 8, 2020

Revised June 10, 2020

Accepted August 7, 2020

Published August 31,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65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약 3.2%에 달하는 수치이다[1].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적인 다양성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시설 및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증가하는 현 상황을 볼 때, 우리 사회의 의료보건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의료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특히 우리나라에 결혼해 온 이민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요인으로 언어장벽, 의료인의 차별,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안, 언어장벽의 해소를 위한 의료인의 배려 부족 등이 보고되었다[4]. 이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대상자를 존중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인 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5].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6-9],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문화적 인식, 문화적 민감성이다. 이처럼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내에서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 태도, 신념 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 없이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10]. 따라서 문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대상자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7]. 이러한 역량은 단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데[7,11], 미래의 간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학부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현재 세계화 및 보건의료 환경의 발달로 인해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건강문제도 확대되는 추세여서[1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실무역량을 갖춘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 이러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인류 공동의 가치와 사회정의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의식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14]. 세계시민의식이란 국제적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갖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말한다[15]. 글로벌화 및 다문화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존중과 책임성을 가지는 세계시민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16]. 간호사는 현재, 미래 세대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은 세계 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세계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17,18].

지금까지 국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련 변인들로는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공감능력,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태도, 문화적 민감성[19-21] 등이 있었으나, 세계시민의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시민의식을 지닌 간호대학생들은 이를 기반으로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세계시민의식의 어떠한 하부 요인들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및 학업 관련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시 소재한 H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 18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는 질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포함하였다. 설문응답이 미비한 11부를 제외한 총 169부(93.8%)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독립변수 4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8명 이상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2.3 연구 도구

#### 2.3.1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의식은 Chi[22]가 개발한 지구시민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공동체 의식 6문항, 다국적 의식 6문항, 시민 의식 9문항, 국가정체 의식 4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923이었으며, 하부영역의 신뢰도 범위는 .848-.898 (지구공동체 의식 .898, 다국적 의식 .848, 시민 의식 .851, 국가정체 의식 .849)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06이었다.

#### 2.3.2 임상수행능력

문화적 역량은 건강관리전문가가 보건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다[6-9]. 본 연구에서는 Han과

Chung[23]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9개 문항, 문화적 기술(cultural skills) 6문항, 문화적 경험(cultural experience) 4문항,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4문항,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4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14,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27이었으며, 하부영역의 신뢰도 범위는 .764-.927 (문화적 지식 .927, 문화적 기술 .931, 문화적 경험 .764, 문화적 인식 .863, 문화적 민감성 .858)이었다.

### 2.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G시 H대학교의 해당 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4월 01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진행 전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 작성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 참여로 인한 장점과 단점,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컴퓨터 파일에는 대상자 고유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보고에 의해 설문을 작성하게 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및 학업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및 학업 관련 특성에 대한 문화적 역량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ANOVA 검정

후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 4)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총 169명 중 남자 24명(14.2%), 여자 145명(85.8%)으로 여자가 많았고, 평균 연령은  $20.88 \pm 2.01$ 세였으며, 연령 군별로는 21세 이상이 92명(54.4%), 20세 이하 77명(45.6%)이었다. 학년은 1학년 47명(27.8%), 2학년 37명(21.9%), 3학년 39명(23.1%), 4학년 46명(27.2%)이었다. 종교는 없는 사람이 111명(65.7%)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33명(19.5%), 천주교 14명(8.3%), 불교 7명(4.1%)순이었다. 대학에서 다문화건강에 관한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명(19.5%), 없는 사람은 136명(80.5%)으로 수강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고, 국제보건에 관한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1명(18.3%), 없는 사람은 138명(81.7%)으로 수강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외국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0명(65.1%), 없는 사람은 59명(34.9%)으로 외국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할 수 있는 외국어는 영어 163명(96.4%), 일본어 36명(21.3%), 중국어 12명(7.1%), 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 2명(1.2%), 베트남어 1명(0.6%)순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외국어 듣기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81명(47.9%), 유창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68명(40.2%), 유창하다고 응답한 사람 20명(11.9%)순이었다. 외국어 말하기는 유창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109명(64.5%),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 53명(31.4%), 유창하다고 응답한 사람 7명(4.2%)순이었다(Table 1).

#### 3.2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대상자의 세계시민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8 \pm 0.46$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 세계시민의식 정도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시민의식  $4.04 \pm 0.50$ 점이었으며 다음은 다국적 의식  $3.53 \pm 0.64$ 점, 국가정체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Percentage
Gender	Male	24	14.2
	Female	145	85.8
Age	20 $\geq$	77	45.6
	21 $\leq$	92	54.4
	Mean $\pm$ SD		20.88 $\pm$ 2.01
Grade	1st	47	27.8
	2nd	37	21.9
	3rd	39	23.1
	4th	46	27.2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33	19.5
	Catholic christian	14	8.3
	Buddhist	7	4.1
	No religion	111	65.7
	Others	4	2.4
Experience in multicultural health classes	Yes	33	19.5
	No	136	80.5
Experience in international health care	Yes	31	18.3
	No	138	81.7
Experience visiting foreign countries	Yes	110	65.1
	No	59	34.9
Possible foreign language <sup>†</sup>	English	163	96.4
	Chinese	12	7.1
	Japanese	36	21.3
	French	2	1.2
	German	2	1.2
	Vietnamese	1	0.6
	Russian	2	1.2
Listening to foreign language	Fluent	20	11.9
	Normal	81	47.9
	Not fluent	68	40.2
Speaking to foreign language	Fluent	7	4.2
	Normal	53	31.4
	Not fluent	109	64.5

<sup>†</sup>multiple responses

의식  $3.45 \pm 0.75$ 점, 지구공동체의식  $3.44 \pm 0.72$ 점 순이었다(Table 2).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Global Citizenship and Cultural Competency (N=169)

Variables	Items	M $\pm$ SD
Global citizenship	25	3.68 $\pm$ 0.46
Global community concept	6	3.44 $\pm$ 0.72
Multinationalism	6	3.53 $\pm$ 0.64
General citizenship	9	4.04 $\pm$ 0.50
National identity	4	3.45 $\pm$ 0.75
Cultural competency	27	3.06 $\pm$ 0.49
Cultural knowledge	9	2.77 $\pm$ 0.68
Cultural skills	6	2.73 $\pm$ 0.73
Cultural experience	4	3.01 $\pm$ 0.62
Cultural awareness	4	3.64 $\pm$ 0.67
Cultural sensitivity	4	3.66 $\pm$ 0.68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6±0.4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 문화적 역량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적 민감성 3.66±0.68점이었으며, 문화적 인식 3.64±0.67점, 문화적 경험 3.01±0.62점, 문화적 지식 2.77±0.68점, 문화적 기술 2.73±0.73점 순이었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및 학업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및 학업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은 국제보건 수강경험( $t=2.37, p<.019$ ), 외국어 듣기능력 ( $F=3.35, p<.033$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제보건과목의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어 듣기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scheffe 사후검증 한 결과, 듣기를 유창하게 한 군이 유창하지 않은 군보다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Table 3).

### 3.4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은 세계시민역량의 하위영역인 지구공동체 의식 ( $r=0.48, p<0.01$ ), 다국적 의식 ( $r=0.42, p<.001$ ), 시민의식( $r=0.27, p<.001$ ), 국가정체 의식( $r=0.32, p<.0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지구공동체의의식이 문화적 역량과 가장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4). 따라서 지구공동체 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의식, 국가정체 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을 잘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ultur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N=1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y	
		Mean±SD	t or F(p)
Age (yrs)	20≥	3.04±0.45	0.39(.699)
	21≤	3.07±0.52	
Gender	Male	2.90±0.53	1.72(.087)
	Female	3.08±0.48	
Grade	1st	3.10±0.45	2.56(.057)
	2nd	2.86±0.48	
	3rd	3.14±0.45	
	4th	3.10±0.54	
Religion	Protestant christian	2.97±0.57	0.73(.571)
	Catholic christian	3.19±0.52	
	Buddhist	3.22±0.29	
	No religion	3.06±0.47	
	Others	2.94±0.39	
Experience in multicultural health classes	Yes	3.14±0.44	1.06(.292)
	No	3.04±0.50	
Experience in international health care	Yes	3.24±0.36	2.37(.019)
	No	3.01±0.50	
Experience visiting foreign countries	Yes	3.08±0.51	1.03(.307)
	No	3.00±.045	
Listening to foreign language	Fluent	3.28±0.55 <sup>a</sup>	3.35(.033) <sup>†</sup> (a>c)
	Normal	3.08±0.48 <sup>b</sup>	
	Not fluent	2.96±0.46 <sup>c</sup>	
Speaking to foreign language	Fluent	3.32±0.43	1.12(.330)
	Normal	3.06±0.48	
	Not fluent	3.04±0.50	

<sup>†</sup>scheffe

### 3.5 세계시민의식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인 지구공동체의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의식, 국가정체의의식 4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80 미만이었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65로 기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Study Variables

(N=169)

Variables	1	2-1	2-2	2-3	2-4
	r (p)	r (p)	r (p)	r (p)	r (p)
1. Cultural competency	1				
2. Global citizenship					
2-1. Global community concept	.482 (<.001)	1			
2-2. Multinationalism	.423 (<.001)	.575 (<.001)	1		
2-3. General citizenship	.271 (<.001)	.361 (<.001)	.392 (<.001)	1	
2-4. National identity	.316 (<.001)	.257 (.001)	.237 (.002)	.413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y

(N=169)

Variables	B	SE	$\beta$	t	p
Global community concept	0.22	.06	.32	3.94	<.001
Multinationalism	0.15	.06	.19	2.34	.020
General citizenship	0.00	.08	.00	0.03	.977
National identity	0.12	.055	.19	2.58	.011
Adj.R <sup>2</sup> =.29 F=17.28 p<.001					

준 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residual)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가 0.63에서 0.82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23에서 1.59로 기준치 10 이하를 보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Table 5).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에서 지구공동체의식, 다국적 의식, 국가정체의식이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F=17.28$ ,  $p<.001$ ), 설명력은 총 29%였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전략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세계시민의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won[16]의 연구에서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공감 및 문화적 역량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 중 특히 지구공동체 의식이 문화적 역량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의 69차 세계보건총회[13]에서는 긴급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One WHO'라는 기조 아래 세계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보건위기관리에 대한 WHO 개혁방안에 맞게, 지구공동체 의식이 향상될수록 문화적 역량도 같이 향상하여 이러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세계시민의식이 미치는 영향은 29%의 설명력을 보였다.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이나 문화적 공감능력, 다문화 효능감, 액션러닝 기반의 다문화 교육 등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9-21,24], 다문화 교육 요구도와 문화적 역량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25]는 있었지만, 세계시민의식이 문화적 역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보건의료인으로써 졸업 후 지역사회의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지닌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공감능력이 세계시민의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26], 일반 성인 대상의 국내의 자원봉사 경험[27], 일반대학생 대상의 자원봉사 경험[28]이 세계시민의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다양성 교육 경험에 따라 세계시민의식에 차이[28]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다국적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교육과 국내 및 해외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직,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지구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은 모든 인간을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국가나 지역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세계시민으로 대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어[29], 우리의 문화와 문화적 유사성이 많고 적응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움의향을 보인 대상자가 세계시민의식이 높았다는 연구결과[30]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인류에 관심을 가지는 지구공동체 의식은 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구공동체 의식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의식, 다

국적 의식도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중등호흡기중후군,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 국가에서 발생한 의료적 이슈가 단지 그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가정책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서 국제보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세계시민의식과 국제보건역량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18], 국제보건과 관련된 교육이나 관련 대중매체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을 늘린다면 미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를 살펴보면, 간호실무 측면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영역별 수준과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병원에서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간호교육 측면에서 세계시민의식이 문화적 역량의 긍정적인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여 차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 중재전략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개발 및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시민의식의 하부영역인 지구공동체의식, 국가정책의식, 다국적 의식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 및 교육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다른 지역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 이외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18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Based on Complete Enumeration, 2018 [Internet]. [cited 2020 February 20], Available From: [https://www.census.go.kr/dat/prs/prsList.do?q\\_menu=5&q\\_sub=2](https://www.census.go.kr/dat/prs/prsList.do?q_menu=5&q_sub=2) (accessed Jan. 20, 2020)
- [2] W. 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222-229, 2011.  
DOI: <https://dx.doi.org/10.4094/jkachn.2011.17.4.222>
- [3] M. K. Cho, H. Y. Jang,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5, pp. 2795-2808, 2015.
- [4] C. K. Koh, S. K. Koh, "Married Female Migrants' Experiences of Health Care Servic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1, pp. 89-99, 2009.
- [5] J. Campinha-Bacote,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Ethnic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vol. 45, no. 9, pp. 26-33, 2007.
- [6] J. R. Betancour, A. R. Green, J. E. Carrillo, O. Ananeh-Firempong II, "Defining Cultural Competence: A Practical Framework for Addressing Racial/Ethnic Disparities in Health and Health Care", *Public Health Reports*, vol. 118, no. 4, p. 293-302,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033-3549\(04\)50253-4](http://dx.doi.org/10.1016/S0033-3549(04)50253-4)
- [7] J. Campinha-Bacote,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3, no. 3, pp. 181-184, 2002.  
DOI: <https://dx.doi.org/10.1177/10459602013003003>
- [8] R. Davidhizar, J. N. Gig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are of Clients in Pain Who Are Culturally Divers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 51, no. 1, pp. 47-55, 2004.  
DOI: <https://dx.doi.org/10.1111/j.1466-7657.2003.00208.x>
- [9] R. J. Watts, N. G. Cuellar, A. L. O'Sullivan, "Developing a Blueprint for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at Penn",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4, no. 3, pp. 136-142, 2008.

- DOI:<https://dx.doi.org/10.1016/i.prof Nurs.2008.01.002>
- [10] S. O. Yang, M. S. Kwon, S. H. Lee,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Visiting Nurses and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3, no. 3, pp. 286-295, 2012.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2.23.3.286>
- [11] M. S. Cronin, *Enha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Doctoral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New York, USA, pp 1-193, 2005.
- [12] H. B. Park, H. S. Cho,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54, no. 2, pp. 197-227, 2016.
- [13] J. A. Jun, "Health Issues in the 69th World Health Assembly," *Health and Social Welfare Forum*, vol. 2016, no. 7, pp. 103-112, 2016.
- [14] S. Reysen, I. Katzarska-Miller, "A Model of Global Citizenship: Antecedents and Outc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48, no. 5, pp. 858-870, 2013.  
DOI:<https://dx.doi.org/10.1080/00207594.2012.70174>
- [15] Oxfam Education and Youth,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p. 1-23, Oxfam GB, 2006.
- [16] S. H. Kwon, H. K. Son, A. R. Han, Y. J. Kim, G. H. Choi, "The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9, no. 2, pp. 1069-1081, 2017.
- [17] J. Holmgren, "Global Nursing: Educating Future Nurses for Tomorrow's Nursing Care Needs", *Nordic Journal of Nursing Research*, vol. 37, no. 3, pp. 172-174, 2017.  
DOI: <https://dx.doi.org/10.1177/2057158517716504>
- [18] Y. S. Kim, M. Y. Han, "Convergenc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Self Leadership and Global Health Competenc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9, pp. 347-357, 2018.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8.16.9.347>
- [19] D. Y. Park, K. H. Jung, "The Influence of Self 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337-346,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11.337>
- [20] M. S. Kim, D. S. Shin,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6, pp. 3437-3450, 2016.
- [21] H. J. Park, N. H. Kim,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ensitivity, Empath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4, pp. 487-498,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4.09>
- [22] E. L. Chi, "Validating the Scale of Global Citizenship and Examining the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 20, no. 2, pp. 151-172, 2007.
- [23] S. Y. Han, H. I. Chung,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5, pp. 684-693, 2015.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5.45.5.684>
- [24] Y. S. Kim, J. Y. Kim, "The Effect of the Cultur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by Action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1, pp. 6527-6535, 2014.  
DOI:<http://dx.doi.org/10.5762/KAIS.2014.15.11.6527>
- [25] I. S. Lee, J. Y. Cho, "A Study on the Cultural Competency and Demand for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283-290,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283>
- [26] J. H. Ko, M. J. Kang, H. J. Kim, "The Convergent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Empathy and Global Citizen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9, pp. 108-116, 2019.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9.108>
- [27] K. H. Park, H. B. Park,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Global Citizenship in Adults", *Global Studies Education*, vol. 8, no. 4, pp. 3-31, 2016.  
DOI: <http://dx.doi.org/10.19037/agse.8.4.01>
- [28] J. H. Kim, S. H. Park, S. M. Cho, "What Affects Korean Undergraduates' Global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4, pp. 183-210, 2010.
- [29] M. C. Nussbaum, Patriotism and Cosmopolitanism, p. 155-162, In: G. W. Brown, D. Held, editors, *The Cosmopolitanism Reader*, Polity Press, 2010.
- [30] C. H. Lee, Y. W. Sohn, H. B. Rim, "The Influence of Cultural Similarity and Empathy on Helping Intention: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smopolitanism",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vol. 18, no. 4, pp. 35-46, 2015.  
DOI: <http://dx.doi.org/10.14695/KJSOS.2015.18.4.35>



강 희 영(Hee-Young Kang)

[정회원]



- 1993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 등재 (2009-2013)/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 (2017-2020)/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2018-2019)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시뮬레이션, 호스피스

---

강 희(Kang Hee)

[정회원]



- 2015년 2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0년 11월 ~ 2018년 8월 : 조선대학교병원 간호사
- 2018년 9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초빙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간호시뮬레이션, 성인간호학

---

김 해 란(Hae-Ra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2018년 3월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8년 4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성인간호학